



SARAZING

시론 02

극한 호우와 플로팅 건축

종합 03

사랑에서 _ 이대로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까요?
건축사 Q&A

전북 지역 뉴스 04-05

재개발·재건축 심의 간소화 예정
청년 매입임대주택 24호 추가 공급 추진
전북 남원시, 지리산활력타운 공모 선정

광주 지역 뉴스 06-07

도시공원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광주건축사회, 교육홍보위원회의 개최하고 2024년도 교육 계획 수립
민간건축물 내진 보강 공사비 지원사업 추진

전남 지역 뉴스 08-09

곡성군, 도시재생 인물 아카이빙 사업 추진
강진시, 빈집 리모델링 사업
화순군, 노후 슬레이트 철거지원 확대 진행

종합뉴스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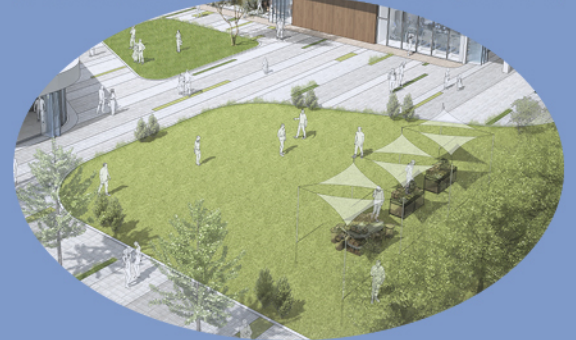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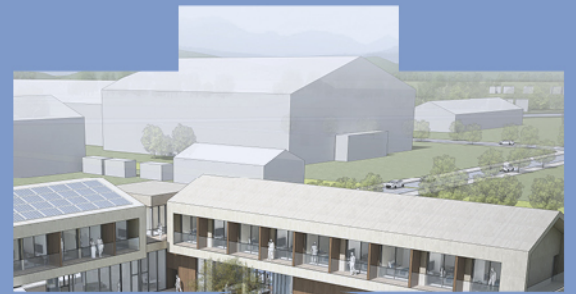
'서울국제건축영화제' 공식 포스터 공개
제4회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공공 및 민간분야 건축사 대가기준 일원화 정책 토론회

설계경기 11

조성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건축설계 공모

독자광장 12

책 소개 _ 서울이 본 도쿄, 도쿄가 본 서울
한 장의 사진 _ 전남도립미술관
한 편의 시 _ 오뉴월 장맛비



건축 문화

사랑

광주·전남·전북 건축사회 신문
News 2023.08.165호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전라남도건축사회
전라북도건축사회



발행인 : 정인채, 한형민, 박진만
창간일 : 2009년 11월 10일

<http://gjkira.kira.or.kr>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건축문화사랑을 스마트폰에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코드로 접속하신 후, 상단 '건축문화사랑'을
클릭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월별 PDF파일을 다운받으시면
구독 가능합니다.

극한 호우와 플로팅 건축



문창호 논설위원

(주)건축사사무소 균형 대표 건축사
mchangho55@gmail.com

- 1978
서울대 건축과 졸업
- 1980
동 대학원 공학석사
- 1989
동 대학원 공학박사
- 1989-1995
순천대 건축과 교수
- 1995-2021
군산대 건축과 교수
- 2008-2010
대한건축학회 전북지회장
- 2016-2022
한국건축가협회 전북지회장
- 2003
완석루(전북건축문화상 금상)
- 2014
난재루(전북건축문화상 우수상)
- 2019
안향재(전북건축문화상 금상)

들어가는 말

올여름 유난히 비가 많이 와서 극한 호우라는 말이 나오면서 전국 곳곳에 다양한 피해가 발생했다. 개개 건물뿐만 아니라 저지대의 경우 도시의 한 구역이 침수되기도 했다. 기후변화로 인하여 외국에서나 보던 집중 호우에 의한 재난이 우리에게도 자주 다가오며 점차 더 가혹해지는 것 같다. 또한 해수면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서 해안가 지역의 건축물 침수 피해는 가속될 것이다. 플로팅 건축이 부분적으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플로팅 건축

플로팅 건축은 부유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주/업무/오락 등을 위한 건물을 의미하는데, 일정한 위치에 계류되어 있으며, 항해를 위한 동력을 갖는 선박과는 구분되며, 기존의 서비스시스템(전기, 상하수도, 가스 등)과 연결되거나 자급 자족적인 서비스 시설을 갖는다.

플로팅 건축은 대별하면 호수, 강, 바다 등에 항상 떠 있으면서 사용되는 협의의 플로팅 건축(floating architecture)과 평상시는 땅이나 구조물 위에 앉아 있다가 홍수 때 수위가 올라가면 건물이 떠올랐다가 물이 빠지면 제자리로 돌아오는 플로터블 건축(floatable architecture) 2가지가 있다.

플로팅 건축의 장단점

육지의 일반 건축과 비교할 때 플로팅 건축의 최고 장점은 수위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고, 물 위에 떠 있기 때문에 지진 등 재난에도 유리하고, 공유수면에 건립하는 경우 대지를 구입할 필요가 없고 저렴한 임대료만 내면 되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가 저렴하며, 냉난방에서 수온과 기온의 차이에 의한 수열을 이용할 수 있어서 친환경적이고, 필요시 다른 장소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고, 대부분 공장생산이기 때문에 공사가 정밀하며 신속하고 현장의 쓰레기 배출이 최소화되며, 물이 시각적으로 배경이 되기 때문에 편안한 주변 환경을 제공하는 것 등이다.

플로팅 건축의 단점으로는 평소 파도가 거의 없는 잔잔한 물 공간(정온 수역)을 확보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파도를 막아주는 방파제를 구축해야 하며, 플로팅 건축 하부에 토사가 쌓이는 경우 꾸준한 준설이 필요하고, 건물이 항상 물에 접하고 있어서 유지관리가 비교적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국내외 플로팅 건축 현황

유럽을 중심으로 주택, 아파트, 호텔, 레스토랑, 카페, 사무소, 학교, 전시장, 운동장, 수영장, 마리나, 주차장 등 거의 모든 유형의 건물이 플로팅 건축으로 건립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다목적 공간인 세빛섬, 플로팅 스테이지, 플로팅 마리나, 해상공원 등이 플로팅 공법으로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부산 북항에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해상도시(Oceanix)가 제안되어 플로팅 주거단지 조성될 예정으로 관련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네옴(NEOM)시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옥사곤(OXAGON)을 추진하고 있는데, 연안 가까운 바다 위에 떠 있는 플로팅 미래형 복합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 추진되면서 우리나라 건설 관련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법적인 문제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대규모 플로팅 건축인 한강의 세빛섬이 추진된 2008년에는 건축법에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하부는 선박으로 상부는 건축으로 관련 법을 적용하여 건립되었다. 그러나 2016년에 건축법 제6조의3(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4(부유식 건축물의 특례)가 건축법에 신설됨에 따라, 플로팅 건축물 건립이 건축법 테두리 내에서 가능해졌다. 또한 건축구조기준(Korean Design Standard)에도 2016년에 부유식 구조(KDS 4170 02)가 추가되어 기술적인 측면도 보완되었다. 그러나 플로팅 건축이 여기저기 거론은 많이 되고 있으나, 아쉽게도 이 법과 기준에 따라서 건립된 플로팅 건축 사례는 아직 없다. 물론 육지의 일반 건축과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건축법을 보완하는 “플로팅 건축물 가이드 라인” 등의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플로팅 건축 제안

장마나 폭우 시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의 저지대에 대규모 유수지를 조성하여 플로팅 주거단지 또는 리조트 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홍수 시에는 주변의 넘치는 물을 일단 유수지로 받아들였다가 차차 시간을 가지고 배출한다. 네덜란드나 독일에서 흔하게 이용하는 홍수에 대비하면서도 주택 단지를 조성하거나 리조트를 개발하는 1석 2조의 이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해안가나 강가의 저지대에 조성되어 만조나 홍수 시 침수 피해가 반복되는 기존 주택에 대하여, 플로터블 주택으로 재건축하는 시범사업을 제안한다. 이런 사업을 통하여 플로팅 건축의 실효성을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풍광이 수려한 네덜란드 중소도시 강변이나 런던 템즈강 강가의 홍수 때 범람이 우려되는 지역에 건립된 플로터블 주택의 사례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맺는말

우리나라도 폭우에 따른 피해가 자주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건축 전문가도 재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건축적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홍수에 대한 건축 분야 대응책으로 플로팅/플로터블 건축 적용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미래의 재해 대응을 위한 국가나 지자체가 주관하는 플로팅 건축 시범사업 실시가 절실하다.

사랑에서 _ 일백네 번째

이대로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까요?

은퇴가 없는 우리 건축사들은 스스로가 그 시점을 결정해야 한다. 그렇기에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종종 받기도, 하기도 한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민간건축공사의 축소로 인해 더욱더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래서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신진 건축사들을 포함한 다수의 기성 건축사들이 공공건축설계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설계비 1억 원 이상 공공건축물은 설계공모가 의무화되어 설계공모를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얼마 전에 설계비가 2억 정도의 현상설계공모 건에 약 70명의 건축사들이 공모 접수한 기억이 있다. 작품은 25개 정도만 접수되었지만 이 숫자의 의미는 어려운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한 숫자이기에 쓸쓸한 마음이 들었다. 현상설계공모의 제출물이 과거보다 많이 간소화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제출물을 제작하는 데 엄청난 기회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알기에 그 무엇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했다.

소규모 건축사사무소는 별도의 전담 설계 공모팀이 없어서 하나의 공모전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진행하는 다른 프로젝트를 잠시 멈추거나 병행하면서 최소 직원 두 명이 2개월가량 투입돼야 하므로 심사위원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신뢰가 담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모에 도전하는 것은 부담이 굉장히 크다. 간혹 설계용역비에 반해 과도한 성과물을 요구하는 공모 제출은 엄두도 못 낸다. 어쨌든 힘들게 공모 안을 제출했다고 치자. 그 이후 다시 고민이 시작된다. 지침서에 공개된 심사위원 명단을 보고 사전에 공모 안에 대한 설명을 하러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한다. 발주처는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심사위원 사전 접촉은 불가하다고 공지하지만 과연 이 규칙이 지켜지고 있는 곳이 얼마나 될까? 건축사들에게는 심사위원에게 사전 설명을 하지 않으면 당선될 수 없다는 소문들이 무성하다. 공모안의 의도를 심사위원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사전 설명이 필요하고, 또 다른 많은 이유들로 인하여 필수 불가결한 순서라고 말한다.

이에 에너지를 쏟고 싶지 않아 공모에 참여하지 않는 건축사, 설계공모에 대한 노하우를 잘 알고 있는 건축사사무소와 협업하여 공동으로 참여하는 건축사, 무모하게 열정만으로 묵묵하게 도전하는 건축사 이렇게 3부류로 나누어진다. 이 중에 누가 가장 옳다고 말할 수 있을까? 몇몇 현상설계공모팀을 갖춘 건축사사무소가 플랫폼이 되어 영업력이 부족한 건축사들의 아이디어를 공유하여 설계에 당선되고, 프로젝트 수주 능력이 부족한 신진 건축사들에게 터무니없는 적은 금액에 실시설계를 하도급 주어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 또한 몇몇 책임감 없는 실시설계로 인하여 현상공모 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공공건축물의 탄생을 그냥 이대로 방관해도 괜찮은 걸까? 이 방식이 올바른 콜라보일까?

건축사 의무가입으로 인하여 많은 건축사들이 함께하는 협회가 되었다. 지역건축사협회도 건축 설계공모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도 개선 작업을 위하여 더 노력해야 한다. 다른 조직이 아니라 우리 건축사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서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대로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은 건축의 힘듦에 대한 궁색한 변명일 수도 있지만 좀 더 희망적인 미래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한숨 같은 질문일 것이다.

자문위원 _ 박주현 건축사(baum-a@naver.com)

건축사 Q&A

건축물해체공사 감리 절차

1.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 1) 허가권자의 허가 또는 신고받아야 함
 - 구비서류-[별지제5호서식] 건축물(해체허가신청서, 해체신고서) 건축물관리법 제30조 1항의 각호
 - ①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 ②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 나.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 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 ③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 시행규칙 제21조1항
 - 가.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건축물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높이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일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으로 적용한다.
 - ④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2) 건축물해체감리자의 허가권자 지정
 - 해체계획서 제출 전 사전검토 - (건축물관리법 제30조 3항의 각호의 자-건축사 등)
 - 3) 허가권자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2항에 의거 [별지 제6호서식] 건축물해체허가서 발급
 - 해체계획검토 - 한국시설안전공단(10톤 장비 탑재, 폭파해체, 건축법 시행령 제2조18호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특수구조건축물 해체)
 - 4) 해체공사 완료신고(건축물관리법 제33조)1항
 - 신고인은 해체공사완료 시 [별지 제10호 서식] 건축물해체공사 완료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
 - 해체감리완료보고서 첨부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 허가권자는 해체완료여부 확인 후 [별지 제11호 서식] 건축물해체공사 완료신고확인증 교부



New, Different, Better

호남지사장 / 이사 김유성

010. 5007. 8437 | 3rsinhwa@hanmail.net

전화 070-4482-0257 팩스 062-975-0140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22, 와이어스파크 A동 1114호(오룡동)



GeoCon (방재신기술) 팽이초공법
침하지반보강/복원 로타리파일(헬리컬)
EcoSM 지반개량 강관압입파일
마이크로파일

INNOBIZ기업 | ISO 9001인증
본사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고재로 141-16
전화 031-577-1673 팩스 031-577-1674
www.bs-base.co.kr

건축문화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발행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행인 정인재, 한형민, 박진만
편집인 임태형
부편집인 임현정, 육광돈
자문위원 박홍근, 서재형, 정명환, 강동영, 박종호, 박주현
전담기자 김종문
논설위원 이순미, 신영은, 박신남, 강필서, 이종순, 백재봉, 정영범, 김미영, 정관성, 양우현
편집위원 윤미순, 양창근, 최정미, 김영규, 이원규, 정영진, 허만수, 설혜순, 오선화, 임용훈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0144
간벌 월간
등록일자 2010-01-25
편집및인쇄 레이아웃 T. 070-8277-2589
광고신청 T. 062)521-0025

광고 및 구독신청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 후면 전면광고 : 1,000,000원
- 구독료 : 20,000원/1년
- 후면 외 전면광고 : 700,000원
- 구독료입금계좌
- 하단광고 : 350,000원
-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 하단1/2광고 : 200,000원
- 계좌번호 : 신한 131-009-471898

건축문화사랑 신문

T. 062)521-0025~6 F. 062)528-0026

건축문화사랑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 발전기금 : 1만원부터
- 후원방식 : 신한 131-009-471898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건축문화사랑 원고모집

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독자사진/지역소식/동회소식/책/수상/수필/작품노트/건축작품/독자만평/기타(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취득, 교수임용 등)
 원고마감 : 매달 25일
 문의 : 광주건축사회(T. 062-521-0025 / gjk@empal.com)
 1. 건축작품 및 기타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2. 원고에는 작가의 사진과 사무소명, 직책 및 약력을 첨부
 3. 원고는 아래 한글, 명조체, 10pt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파일로 제출

적상 오색단풍이야기센터

윤창식 건축사 / 윤 건축사사무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석산1길 16, 4층

Tel. 063-271-9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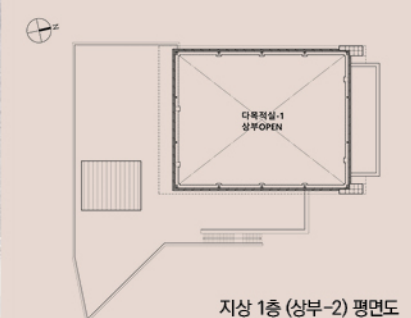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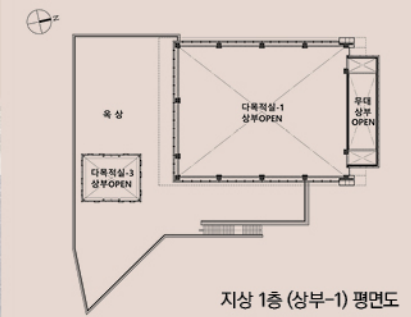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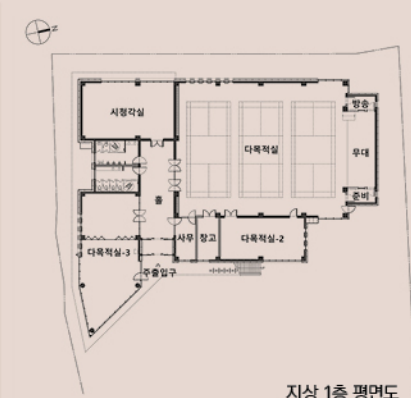


대지위치 : 전라북도 무주군 적상면 사천리 334-3, 484-1 / 대지면적 : 2,633.00㎡ / 건축면적 : 1,062.62㎡ / 연면적 : 999.77㎡ / 규모 : 지상 1층 / 주용도 : 마을공동이용시설(제1종근린생활시설)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다목적실상부) / 주요 마감 : 테라코타, 고밀도목재, 불연강판, 노출콘크리트



‘적상 오색단풍이야기센터’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분산된 각 마을 주민들의 다양한 활동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확보와 함께, 적상면 주민자치센터와 상호 연계되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적상산과 적상천의 자연 지리적 특성에 맞게 ‘오색단풍이야기센터’는 무주 적상면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을 활용한 경관계획을 통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담아 적상면의 아이덴티티를 담아 표현했다.



전주시, 재개발·재건축 심의 간소화 예정

정비사업의 품질 향상, 행정 효율성 제고,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 경감 효과 등 기대

전주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통합 운영하도록 의무화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일반 공동주택건설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통합심의 제도가 마련돼 운영해 왔지만, 민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경우 통합심의를 위한 규정이 없어 건축·경관·교통영향·교육환경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개별 심의를 거쳐야 하는 관계로 사업에 속도를 내기 어려웠다.

개정안이 이달 중 공포되면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에 필요한 건축, 경관, 교통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등 개별법령에 따른 심의가 통합 운영되는 만큼, 평균 10개월 정도 소요되던 심의 기간이 약 3개월로 총 7개월 단축돼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해지고 사업시행자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전주시지역의 경우 재개발 정비사업 10개 구역과 재건축 정비사업 9개 구역 등 총 19개 구역이 개정된 법령의 적용을 받게 되며, 시는 통합심의회가 시행되면 보다 효율적인 행정 운영은 물론 각계 전문가의 종합적인 심의를 바탕으로 정비사업의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주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24호 추가 공급 추진

임대료 시중 가격 50% 이하... 최대 20년까지 임대 가능

전북 전주시가 주거비 부담 등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대학생·취업준비생들을 위해 24호 규모의 청년매입임대주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전주형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민간사업자 공모를 거쳐 선정된 사회적 경제주체와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등이 기획·설계·시공을 맡아 진행하고, 준공 후 시에서 매입하게 된다. 이후 공모에 선정된 사업자가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운영·관리를 맡게 된다.

임대료는 시중 가격의 50% 이하로 공급될 예정으로, 전주시는 오는 2024년 하

반기 입주자 모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지난 14일 전주시 에너지센터에서 사회적 경제주체 및 민간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2023년 전주형 청년임대주택 신축매입약정 사업설명회'를 열고, 청년임대주택 공급의 필요성과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신축매입약정방식의 사업절차 등 기본적인 지식과 정보를 전달했다.

이에 앞서 전주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청년 전용 임대주택을 공급했으며, 지난해까지 총 7개소 82가구의 청년임대주택을 공급했다.

신축매입약정형 청년임대주택과 민간사업자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전북 남원시, 지리산활력타운 공모 선정

전원마을조성사업... 사업비 220억 투입 예정



전북 남원시가 지난달 선정된 지리산지역활력타운 시범사업에 2024년 본격적인 설계를 시작으로 2026년 8월까지 모든 시설을 준공하고, 같은 해 9월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활력타운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방 이주를 원하는 수요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7개 부처가 지원사업을 연계해 주거·돌봄·일자리 등 복합 주거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리산 자락 해발 600m 고지에 만들어지는 지리산 활력 타운은 220억 원을 들여 타운하우스 36호, 단독주택 32호, 임시 주거 시설인 타이니하우스 10호 총 78호를 조성해 은퇴자 및 귀향·귀촌자에게 분양 및 임대방식으로 공급한다. 단지 내에는 실내체육관과 복합커뮤니티센터, 텃밭, 공유 마당 등 생활 편의시설도 갖출 예정이다. 끝으로 남원시는 오랫동안 머물게 되는 마을, 사람과 자연을 이어주는 건축과 유기체처럼 성장할 수 있는 마을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전라북도건축사회, 호우피해를 입은 지역민들께 성금 기탁

지난 8월 1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1,000만원 기탁



전라북도건축사회는 1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도내 수재민들을 위해 전북도에 성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성금 전달식에는 김관영 도주사와 박진만 전라북도건축사회 회장, 유병설 전라북도 사회복지공동 모금회 사무처장, 이태원 부회장, 조은석 총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전달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수해복구 지원을 위한 경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박진만 전라북도건축사회 회장은 “호우피해를 입은 지역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조금이나마 수재민의 슬픔을 덜어 드리고자 회원들과 함께 작은 정성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건축인으로서 도내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봉사와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석면 퇴출 예정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 석면 해체·제거 40교 대상

전라북도교육청이 안전한 학교 석면 관리를 위해 집중 교육을 실시한다. 전북교육청은 14일 동암고 시청각실에서 '여름방학 석면 해체·제거 학교 모니터단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올 여름방학 동안 석면 해체·제거 공사가 이루어지는 40개교 학교 석면 모니터단을 대상으로 했다.

학교 석면 모니터단은 학교장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시민단체, 석면감리원, 석면해체·제거업체 현장대리인에 해당 공사 감독관 등으로 구성·운영된다. 주요 교육내용은 학교 석면 제거 추진방향, 석면 일반 및 안전 관리, 학교 석면 모니터단 활동 등이다.

전북교육청 이번 여름방학 동안 40교에서 2만6,274㎡의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달 현재 도내 학교시설 연면적 505만㎡(800개교) 중 석면 보유 면적은 약 12만㎡(97개교)로 연면적 대비 2.33%다. 여름, 겨울방학 중 186억 원을 투입해 약 8만4,000㎡의 사업이 완료되면 석면 잔여 면적은 약 3만3,000㎡(0.6%)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는 '학교 석면 제로화'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임실군, 개발부담금 제도 홍보 진행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 및 도시환경 정비사업 등... 8개 사업 추진

지난 1990년 1월에 도입된 개발부담금 제도는 각종 인·허가에 따른 지목이 변경되는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해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환수액을 국토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이다.

개발부담금은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각종 개발사업 중 인허가 부지면적이 도시지역 990㎡, 비도시지역 1천650㎡ 이상인 사업에 부과되거나, 동일인이 연접한 토지에 행하는 5년 이내의 사업은 연접사업으로 보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며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한다.

개발이익은 부과종료시점의 지가에서 부과개시시점의 지가와 정상지가 상승분, 개발비용을 모두 합한 비용을 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대표적인 사업에는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도시개발 및 도시환경 정비사업,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 8개 사업이 있다. 납부 의무자는 개발사업의 준공 인가 등을 받은 경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군에 제출하고 개발비용 관련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원시, 단독주택 용도 한옥 건축사업 시행

한옥건축 문화 확산 및 보급을 위한 사업비 지원...

전북도와 남원시가 단독주택 용도의 한옥 건축 시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0년부터 신규시책으로 진행된 사업으로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한옥을 신축하거나, 등록된 한옥의 증·개·재축 또는 리모델링 시 보조금을 면적별로 차등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옥건축 지원금액은 공사비의 2분의 1 이내 범위에서 신축의 경우 최대 5천만원, 증·개·재축 또는 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3천만원이다.

지원 대상 한옥은 실제 생활 및 거주 목적의 단독주택으로, 바닥 면적이 60㎡ 이상의 규모로 한옥의 형태 등은 '한옥 건축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야 한다.

시는 전북도의 사업계획 확인 후 8월 중 전라북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며, 신축 외 공사는 전북도에 전통 한옥으로 등록돼 있어야 지원 가능하다.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거나 해당 읍면동주민복지센터에서 문의하여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문의 사항은 건축과 건축담당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군산시, 중앙광장 조성사업 착수

국토부 공모에 선정된 도시재생사업비 16억 원을 활용... 도시활력 회복 기대

군산시는 31일 군산공설시장 및 신영시장 옆 폐철도 유휴부지에 전통시장 이용편의 및 활력제고를 위해 「중앙광장 조성사업」을 오는 8월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17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10,082㎡ 부지에 조성된다. 국비 10억, 도비 1억을 포함한 총사업비 16억 원을 활용해 다목적 광장, 휴게쉼,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하고 다양한 공간활용과 남녀노소가 함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경기침체 및 이용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실시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사정삼거리부터 추진 중에 있는 도시바람길숲과 도시재생숲을 잇는 자연스러운 녹지공간을 통해 인근 시민과 관광객에게 쾌적한 경관과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도시활력 회복과 생활환경 개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북 회원동정

•입회

- 윤다나 건축사 / 비움 건축사사무소 / 전북 부안군 부안읍 용계길 47, 112호
- 국형호 건축사 / 제이디 건축사사무소 / 전북 군산시 수송로 314, 202호
- 김미정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해온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천장로 468, 204호 바움 2층
- 채윤석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보람 / 전북 익산시 부송로 16, 2층

담양 T&D

김대영 건축사 / 인우 건축사사무소
 광주 광산구 장신로 136, 본타워 4층
 Tel. 062-945-5442



대지위치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천변리 184-3번지 / 대지면적 : 1,133㎡ / 건축면적 : 364.72㎡ / 연면적 : 599.12㎡ / 건폐율 : 32.19%
 용적률 : 52.88% / 규모 : 지상 2층 / 주용도 : 근린생활시설(의원, 갤러리)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주요 마감 : 롱브릭타일, 스타코플렉스



광주광역시, 도시공원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8월 18일까지 위촉직 위원 14명... 자문과 심의를 수행 예정

광주시는 오는 8월 18일까지 도시공원위원회 위원 14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현 도시공원위원들의 임기는 9월 14일 만료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은 9월 15일부터 2년간 활동하게 된다.

모집 분야는 조경(공원·녹지·산림), 도시경관(디자인·조명), 도시공학(건축·토목·도시계획), 도시생태(수질·환경) 등이다.

응모 자격은 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대학·대학교의 조교수급 이상 이거나 박사학위 소지자로 실무 경력 5년 이상인 자, 기술사로서 5년 이상인 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소·연구원의 연구 책임자급 이상인 자, 관련 분야 5급(사무관) 이상 공무원 근무 경력 5년 이상인 자다.

도시공원위원회는 광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자문, 공원 조성 계획 심의, 도시녹화계획의 심의 등을 수행한다.

방문, 우편, 전자 메일로 응모 서류를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누리집이나 광주시 신활력추진본부 도시공원과(062-613-4221)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건축사회, 교육홍보위원회의 개최하고 2024년도 교육 계획 수립

지난 7월 10일 광주건축사회 4층 소회의실에서... 내년 상·하반기 진행 결정



건축사법시행규칙 제26조(실무교육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에 의거 교육시작 1개월 전까지 국토부 승인을 받기 위해 광주건축사회는 지난 7월 10일 광주건축사회 4층 소회의실에서 교육홍보위원회의 개최를 통해 2024년도 교육 계획을 수립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홍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등 6명이 참석했으며, 2024년도 실무교육을 전문교육 4과목(공사감리 현장의 안전관리 방안, 건축과 조경, 건축설계 안전성 검토, 건축구조설계의 이해)와 윤리 2과목(건축사 윤리강령 및 법률적 의무, 세우는 자 생각하는 자)을 실시할 예정이다.

광주시, 민간건축물 내진 보강 공사비 지원사업 추진

12월 31일까지 접수... 내진성능평가 비용 등 지원

광주시는 민간 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촉진하기 위한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은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공사(설계비 포함) 비용의 20%를 지원한다. 대상은 문화·종교·관광숙박시설 등 연면적 1,000㎡ 이상의 다중이용 건축물 중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민간건축물이다.

광주시는 12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아 사업대상을 선정하고 내진보강 사업을 실시한 후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민간건축물의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을 위한 내진성능평가와 인증심사 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신청 대상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심의를 거쳐 지진안전시설물로 인증되면 건축물에 부착할 수 있는 인증명판도 발급해 준다. 또한 내진 보강 공사 시 세제 감면 및 보험료 할인, 건축물 대장에 내진성능표시 등의 혜택을 부여해 내진보강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 광주적십자병원의 보존·활용사업을 본격 추진

연내 건축기획용역 통해 보존·활용안 확정... 건축설계 공모



출처 : 광주시 제공

광주광역시는 시청 다목적홀(18층)에서 5·18관련단체, 시민단체, 건축관련 전문가, 광주시 공공건축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옛 광주적십자병원 보존 및 활용사업 전담팀(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담팀(TF) 1차 회의에서는

옛 광주적십자병원 사업방향과 보존범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옛 광주적십자병원의 보존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각 단체 또는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전담팀(TF) 회의 때 폭넓게 검토하기로 했다.

또 보존범위에 대한 기본(안)이 도출될 경우 주민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참석자들은 보존범위를 결정한 후 사업방향, 규모 등 활용 방안을 추후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전담팀(TF) 위원들은 옛 광주적십자병원을 찾아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사업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올해 안에 전담팀(TF)과 건축기획용역을 통해 보존·활용계획(안)을 확정하고, 건축설계공모를 통해 최상의 5·18 상징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옛 광주적십자병원(5·18사적지 제11호)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부상자 치료와 자발적 헌혈이 이뤄진 상징적인 5·18사적지다. 사적지 보존을 위해 옛 서남대학교로부터 2020년 7월 매입했으며, 이후 광주시에서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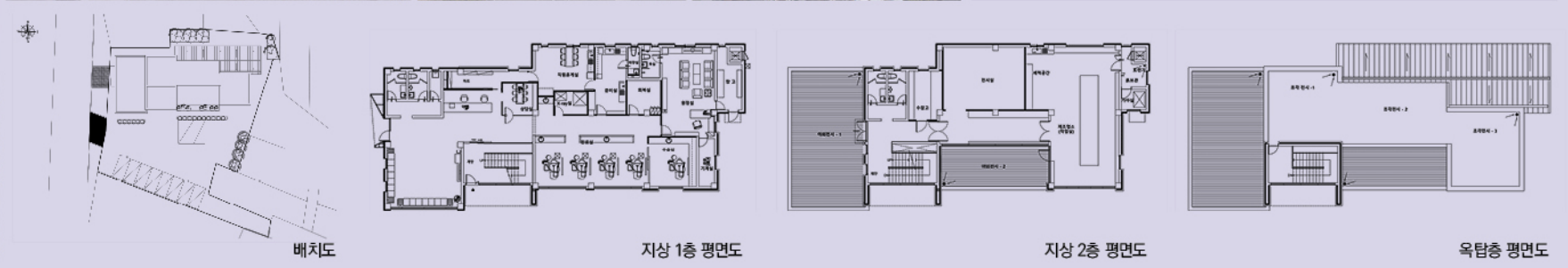
하지만 본관과 부속건축물의 안전등급이 D~E등급으로 매우 취약한 것으로 조사돼 구조와 내진에 대한 보수·보강이 불가피해 5·18기념사업위원회에 보수·보강(안)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담양T&D는 치과, 공방 그리고 갤러리 얼핏 보면 잘 떠오르지 않는 조합의 건축물이며 지나가는 사람들은 카페로 착각하는 분들도 있는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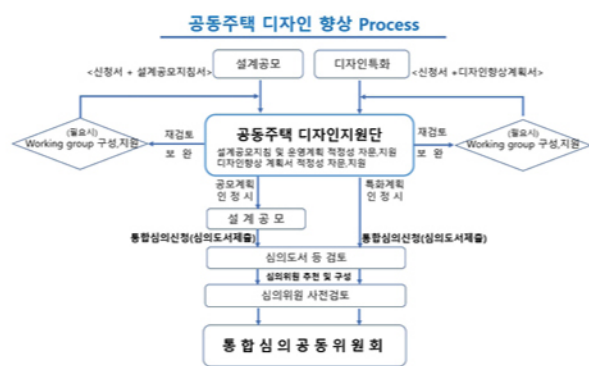
건축주는 치과를 운영하는 남편, 그리고 도예를 하는 아내로 각자 원하는 공간의 성질이 달랐다. 그래서 처음에는 2동으로 계획을 하였으나 1개의 건물에 2개의 성격을 담기로 결정되었다.

1층은 치과, 2층은 도예공방 및 갤러리로 수직 동선으로 서로간의 영역을 구분하였다. 모던함을 위한 건축주의 요청으로 디자인은 건축주의 O.K 사인을 받았지만 자치단체의 디자인조례라는 걸림돌을 넘어가는 것이 힘들었다. 이견을 가진 두 그룹을 상대하며 협의점을 찾아가는 과정도 건축가의 몫이기에 그 과정을 즐기면서 단순한 형태의 원안을 최대한 유지하는 타협안으로 담양T&D는 탄생하였다.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디자인 특화

전국 최초 공동주택 디자인 향상 프로세스... 중대형 단지 시범 적용



광주광역시는 도시경관력 강화를 위한 도시경관·건축물 디자인 향상 방안의 하나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운영규정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운영규정은 획

일적이고 특색 없는 아파트를 탈피해 공동주택을 창의적이고 다양한 디자인으로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민간주택건설사업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개별 심의절차를 이행했다. 이는 사업 장기화, 금융비용 증가 등 사업자 부담이 가중되고, 심의과정에서 심의내용 상충, 이미 의결된 내용의 재심의 등으로 특화된 아파트 경관 반영이 어려웠다.

새로 도입된 운영규정에 따라 도시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600세대 이상 시범 적용하고 공동주택 디자인향상 프로세스를 통해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은 건축·경관·교통·개발행위 등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공동주택 디자인 향상 프로세스’는 설계공모, 디자인특화 등으로 접수된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공동주택 디자인지원단이 도시경관 향상, 디자인우수, 공공적 측면에서의 가치증대 등을 종합 자문·지원하고, 심의위원 검토를 거쳐 통합심의공동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동주택 디자인지원단’은 광주시 도시공간국장을 단장으로, 광주시 총괄건축가, 도시계획·건축·경관위원회 위원장, 교통·환경·녹지분야 전문가, 관련기관 및 협회 추천 전문가, 도시디자인 또는 도시마케팅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자 등 12명으로 구성·운영된다.

통합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업주체는 도시경관과 건축물 디자인 향상을 위한 디자인향상계획서를 수립해 공동주택 디자인향상 프로세스를 이행하면 된다.

광주시는 타 지역의 경우 주택공급만을 목적으로 통합심의 규정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 광주는 디자인향상 프로세스를 통해 매력적인 도시경관 창출 유도, 신속한 주택공급 등을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사업 장기화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 주체가 수준 높은 디자인 건축물을 제시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공동주택의 계획(안)이 창의적이고 우수한 디자인으로 향상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 친환경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의무 적용

광주광역시는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하고 친환경 녹색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한 광주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과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인 건축물의 신축, 별도 증축, 전면 개·재축 및 이전 등 건축행위를 할 때 친환경,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설계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공공·민간건축물 모두 적용대상이다.

먼저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을 의무화했다. 2018년 제정돼 공공건축물은 의무, 민간건축물은 권장이던 것을 민간건축물까지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을 의무화하고, 건축위원회나 건축허가 시 관련기관에서 적용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연면적 3천㎡ 이상인 건축물이나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규모에 따라 1~3등급으로 적용하던 것을 공공건축물은 연면적 500㎡ 이상까지 확대하고 적용대상 건축물 전부 1++등급으로 2단계 이상 강화했다. 민간건축물의 경우 적용대상은 유지하되 1+~2등급으로 1단계씩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을 강화했다. 또 연면적 1만㎡ 이상인 건축물이나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규모에 따라 적용하던 것을 공공건축물은 연면적 500㎡까지, 민간건축물은 연면적 300㎡ 이상 및 공동주택 30세대 이상까지 확대했다. 설치비율은 2030년까지 공공건축물은 40%, 민간건축물은 16%까지 높이도록 했다.

적용방법은 건축물의 주거와 비주거를 대상으로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녹색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등급 등에 따라 용적률, 건축물 높이를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건축경관과장은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으로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고 민간 부분으로 확산을 통해 건축물 에너지성능 향상과 효율을 개선함과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으로 2045 탄소중립 광주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회원동정

• 입회

- 장지혜 건축사 / 솔지 건축사사무소 / 광주 동구 제봉로138번길 9
- 양규중 건축사 / 삼우 건축사사무소 / 광주 광산구 수완로52 1층 103호
- 나예진 건축사 / 서현 건축사사무소 / 광주 북구 저불로 18-4
- 강만호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테라 / 광주 남구 서문대로402번길 37, 1층
- 오현진 건축사 / 현진 건축사사무소 /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22 A동 1208호

• 재입회

- 정양섭 건축사 / (주)유성종합 건축사사무소 /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10 B동 1312호

곡성군, 도시재생 인물 아카이빙 사업 추진

주민들의 삶 기록으로 삶의 공간 속 새로운 인문학적 가치 부여



전남 곡성군이 석곡면 도시재생사업 3년 차를 맞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새로운 형태의 전산 기록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년 석곡면 도시현장지원센터는 도시재생 아카이빙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석곡면의 옛 모습을 담은 사료를 수집하고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일상 속 이야기를 담아 전산 기록화했다.

이달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매달 시행하는 '도시재생 인물 아카이빙 사업'은 마을 또는 실제 거주하는 주거환경을 배경으로 주민의

삶을 기록한다. 이 사업으로 주민 삶의 공간인 마을에 새로운 인문학적 가치를 부여하고 세대 간의 공감과 화합의 장을 마련한다.

이번 전산 기록 결과물은 석곡면 도시현장지원센터의 디지털 아카이브에 보관될 예정이다. 석곡면의 다양한 자료를 분야별로 기록해 둔 석곡면 디지털 아카이브는 시간과 공간에 쌓인 역사와 문화를 기록해 석곡면의 새로운 콘텐츠로 활용될 방침이다. 해당 자료들은 추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발간 예정인 도서 석곡소담과 석곡면 아카이브 전시 등 여러 형태로 주민들에게 찾아갈 예정이다.

강진시, 빈집 리모델링 사업

리모델링비 7천만원까지 증액... 인구소멸 대안으로 주목

강진군 빈집 리모델링 사업은 인구가 줄며, 사람이 살지 않아 흉물로 변해가는 빈집을 리모델링해 농촌에 활력을 찾고, 나아가 귀농이나 귀촌 인구를 유입해, 인구 증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틈새 전략이다.

빈집을 군에 임대하면 5년 임대 시 5천만원, 7년 임대 시 7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리모델링하고, 빈집을 매매하거나 리모델링한 후 전입하면 최대 3천만원의 비용을 지원한다. 군에서 매입한 빈집은 철거 후 모듈러 주택의 신축 부지로 활용된다.

현재, 군동·도암·음천면에 총 5채의 모듈러 주택을 신축할 계획이며,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된 빈집과 모듈러 주택은 농산어촌 유학과 연계해 입주민을 모집하고, 공실이 생기면 일반 귀농·귀촌민을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7월 10일 기준, 군의 리모델링 신청은 60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강진군 빈집 심

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27채가 선정됐다.

빈집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부군수로, 농어촌개발추진단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당연직 5명과 위촉직 6명 등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민관협력체이다.

심의위원회는 단순 대상자 심의의 기능을 넘어, 주택 발굴에서 설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며,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민관의 하나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이다.

현재 읍·면사무소에서는 빈집 리모델링 지원 사업 접수를 진행 중으로, 입소문을 타고 빈집 소유주들의 관심이 쇄도하며, 벌써부터 리모델링 주택 입주에 대한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군은 빈집 리모델링을 포함해, 신규마을 조성, 일자리 정보, 귀농귀촌 등, 일명 '강진살이 원스톱 서비스'를 이르면 10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시스템 구축을 위해 7월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인구정책과에서 8개의 관련 부서 팀장과 실무자가 모여 추진 계획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강진으로의 이주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한곳에서 모아 볼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에서 제공할 계획이다.

화순군, 노후 슬레이트 철거지원 확대 진행

지난해보다 8% 증액된 19억 원 확보... 연차적 처리 지원



출처: 화순군 제공

화순군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슬레이트로부터 시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자 금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 및 지붕개량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사업비가 지난해 보다 8% 증액된 19억 원을 확보하여 주택은 물론 차고나 축사의 비주택 슬레이트 건물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특히, 기초수급

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한해서는 슬레이트 철거비가 전액 지원되며, 지붕개량 또한 1,000만원까지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비용부담을 줄였다.

또한 비주택 건축물(창고, 축사)은 철거지원 슬레이트 면적이 슬레이트 면적 200㎡까지 확대함에 따라 노후 슬레이트 철거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물 소유자가 건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건축물 대장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전문처리업체에서 철거 후 업체에 처리비용이 지급된다.

군은 올해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방치되거나 노후화된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슬레이트 처리를 좀 더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서구 청소년꿈누리센터

봉환성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아이
전남 나주시 중앙2길 14 / Tel. 061-332-5551



대지위치: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1287-1 / 대지면적: 825.30㎡ / 건축면적: 494.01㎡ / 연면적: 2,002.65㎡ / 건폐율: 59.86%
용적율: 191.13% / 규모: 지하 1층, 지상 4층 / 주용도: 청소년 수련시설

전남건축사회, 공사감리교육 무안군과 순천시에서 실시

8월 31일 무안군, 9월 5일 순천시에서... 공사감리 전문교육 4시간 인정

전라남도건축사회는 오는 8월 31일과 9월 5일 건축사실무교육을 실시한다. 먼저 8월 31일 오후 1시부터 실시되는 공사감리 전문교육은 전남여성가족재단 2층 공연장에서 개최되며, 9월 5일 또한 오후 1시부터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 2층 공연장에서 개최된다.

양일 모두 강사가 동일한데 '공사감리 필수 확인점과 보고서 작성방법, 공사감리 현장의 안전관리 방안'이라는 주제로 (주)에이플러스 건축사사무소 조병섭 건축사의 강연이 진행된다.

전문교육 4시간이 인정되는 교육이며, 해당교육 신청은 2023. 8. 7(월)부터 ~ 2023. 8. 18(금)까지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교육원 홈페이지(<http://www.kiraeb.or.kr>)에서 신청 가능하다.

일자	교육종류 (교육비)	시간	교육명	강사	장소
8. 31 (목) 서부	전문교육 (3만원)	13:00 ~ 15:00	공사감리 필수확인점과 보고서 작성방법	조병섭 (주)에이플러스 건축사사무소 (서울건축사회)	전남여성가족재단 2층 공연장
	전문교육 (3만원)	15:00 ~ 17:00	공사감리 현장의 안전관리 방안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30
9. 5 (화) 동부	전문교육 (3만원)	13:00 ~ 15:00	공사감리 필수확인점과 보고서 작성방법	조병섭 (주)에이플러스 건축사사무소 (서울건축사회)	(전라남도교육청)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 2층 공연장
	전문교육 (3만원)	15:00 ~ 17:00	공사감리 현장의 안전관리 방안		순천시 생태배움길 22

나주시, 빛가람동 공동주택 DR사업 추진

주 1회 전력 사용량 줄일 시... 현금 포인트 적립

나주시가 공동주택 각 가정에서 전력 사용량을 줄이면 현금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일석이조의 에너지 절감 정책(지역 DR)을 도입했다.

올해 빛가람동 공동주택 22개 단지를 대상으로 8월부터 '수요 반응형'(Demand Response·DR) 에너지 절감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가정에서 전력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 감축할 수 있는 전력을 미리 정하고 실제 사용량을 줄이면 현금 포인트를 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평일 10일 중 사용전력량 최대치 1일과 최소치 1일을 제외하고 남은 8일의 평균 사용량에서 10% 이상을 절감하면 된다. 에너지 절감은 헤리트에서 개발한 앱을

통해 주 1~2회에 걸쳐 전 주 가장 사용량이 높았던 시간대에 전달된다. 주 1회 이상 절감 미션을 성공하면 1,000원 상당의 현금 포인트가 지급된다.

DR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는 8월 6일까지 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참가 신청서를 작성해 나주시청 에너지산업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순천시, 제2기 공공건축가 위촉

건축·도시·조경 분야... 공공건축가 14명

전남 순천시는 시민 중심의 공공공간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이기 위하여 27일 제2기 순천시 공공건축가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5월 고려대학교 남정민 교수를 총괄건축가로 연임·위촉하였으며, 제2기 공공건축가는 건축, 도시, 조경 분야의 교수와 건축사 14명의 전문가로 구성했다. 이들은 2년의 임기로 순천시 전 지역의 공공 건축·도시 관련 사업에 대한 기획·자문·심의 등 활동을 하게 된다. 한편, 순천시 민간전문가(총괄·공공건축가)제도는 2021년 6월 국토교통부 공모에 전라남도 지자체 중 최초로 선정돼 운영 중이며, 제1기 총괄·공공건축가들은 그동안 24개 주요 사업에 대한 심의 및 자문 등에 참여하여 공공건축의 사회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 향상에 적극 노력했다.

끝으로 순천시는 총괄·공공건축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건축·도시 관련 공공사업의 총괄·조정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통합적인 도시디자인 관리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 회원동정

•입회

- 이은경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은건축 / 전남 담양읍 추성로 1361
- 정윤주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터 / 전남 정성군 장성읍 영천로 189
- 임흥빈 건축사 / 승지 건축사사무소 / 전남 정성군 장성읍 신천길 48
- 박주영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미지 /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12-2, 2층
- 김성식 건축사 / 케이엔피 건축사사무소 /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12-2, 2층

•재입회

- 고재선 건축사 / (주)천우동백 건축사사무소 / 전남 나주시 시청길 15-10
- 김송준 건축사 / 문화아주 건축사사무소 / 전남 정성군 장성읍 영천로 195-1

•전입

- 윤상구 건축사 / 산하 종합기술건축사사무소(주) / 전남 여수시 시청서2길 39-1

•부고

- 한갑수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한건축 / 모친상 - 2023년 7월 15일(토)
- 황민하 건축사 / 부광 건축사사무소 / 빙부상 - 2023년 7월 18일(목)



버드나무 아래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품다

청소년들이 수시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시설로서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설비와 프로그램을 갖춘 청소년 시설의 확충으로 청소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부족한 청소년사업 공간을 확충함으로써 건전한 청소년 문화 확산에 기여



‘서울국제건축영화제’ 공식 포스터 공개

9월 6일 개막, 글로벌 영화제로 ‘스케일’ 확장하는 의미 담아



대한건축사협회가 오는 9월 열리는 서울국제건축영화제의 개막을 앞두고 공식 포스터를 공개했다.

공개된 포스터는 심플한 형태와 색상의 조화를 통해 주제인 ‘스케일(SCALE)’의 의미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모노종이에 그래픽화한 건축물을 배치하고, 눈금자와 건축도면, 그리고 서체 디자인을 통해 건축영화제의 정체성을 직관적으로 표현했다.

이번 영화제 슬로건 ‘스케일(SCALE)’은 지난 15년간 아시아 유일의 건축영화제로 자리매김했던 영화제의 현주소를 점검한다는 의미를 가지면서, 동시에 서울과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영화제로 성장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실제로 대한건축사협회가 주최·주관하는 서울국제건축영화제는 지난 2009년 첫 개최 이후 지금까지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지역 등 숨겨진 지구촌의 건축영화를 발굴해 왔고, 현재는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영화제로 ‘스케일’을 확장해 가고 있다.

올해로 15회를 맞는 서울국제건축영화제는 9월 6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다. 이화여자대학교 내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9월 10일까지 1차 상영을, 이후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 네이버 TV를 통해 온라인 상영에 나선다.

제4회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국토교통부 장관상 및 총상금 1,200만원... 9월 7일(목)까지 진행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은 국토교통부와 건축공간연구원이 국민의 정책 수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건축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국민들의 정책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하는 행사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건축과 도시 환경에 대한 미래 구상을 다루는 일반 부문뿐 아니라 일상 공간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스마트+빌딩 부문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공모전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동영상, 포스터, 에세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안하면 된다. 수상작 선정은 9월, 시상식은 10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출처 : 국토교통부

시상은 각 부문별로 제출형식에 상관없이 우수한 아이디어를 선정하여 최우수상인 국토교통부 장관상 1건(상금 300만원), 우수상 1건(상금 100만원), 장려상 4건(상금 50만원) 등 총 12건을 시상한다.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공식누리집(<http://idea.aurum.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공 및 민간 분야 건축사 대가기준 일원화 정책 토론회

건축설계산업 정상화 위해 절실, 조속히 이뤄져야



대한건축사협회가 주최·주관한 ‘건축설계 산업 정상화를 위한 공공 및 민간 분야 건축사 대가기준 일원화’ 정책 토론회가 7월 12일 대한건축사협회 1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 향상, 건축 설계

산업의 정상화를 목적으로 건축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재 공공 분야 건축사는 공공발주사업 등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의무적으로 채택하지만 민간 건축사는 공공 대가기준을 참고해 기준을 규정

하고 있다.

건축물의 안전은 공공과 민간의 구분이 없으나 민간건축물은 건축사업무대가기준에 대한 발주자의 인식 부족과 저가 수주로 인해 설계·감리 품질 저하 및 부실시공, 안전사고 우려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과도한 경쟁과 불공정 계약으로 건축사사무소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업계의 어려움은 그대로 반영돼 건축설계분야에 우수한 인력의 유입이 제한되고 있으며, 기존의 인력마저 유출이 심화 되는 등 건축설계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공공 및 민간 분야 건축사 대가기준 일원화를 위한 ‘건축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와 국회에 제안할 계획이다.

‘삶을 짓다’ 미리 보는 국립도시건축박물관

2025년 개관 예정인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개관전 전시 설계안 공개



출처 :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2025년 개관 예정인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개관전 전시 설계안을 공개하였다. 박물관은 세종시 국립박물관단지 내에 순차 개관 예정인 5개 박물관 중 하나로, 연면적 2만2,155㎡, 5개 층(지상3+지하2) 규모이다.

개관전 전시는 “삶을 짓다: 한국 도시 건축, 1953-2008” 테마로 도시건축 연대기, 주거, 도시 인프라, 건축구법, 도시건축 등 10개 소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밖에 인위적인 전시벽을 최소화하여 건축물 본래의 공간미를 살렸다.

또한 상설전시, 기획전시의 공간 계획을 통해 박물관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최신 전시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재해예방시설 갖춘 건물은 용적률 1.4배 완화

재해예방시설 갖춘 안전한 건물 건축 유도, 도시의 재해대응력 강화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 후속 조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방재지구에서 개별 건축주가 물막이판이나 빗물저장시설 등 재해예방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건물 용적률을 최대 1.4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 재해취약지역에 방재지구를 지정해 개별 건축물 단위의 재해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도시·군계획시설에 재해취약지역 대상을 현재 방재지구, 급경사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에서 재해취약성 I, II 등급 지역까지 확대하며 등급의 결정은 국토계획법 제20조를 통해 도시민감도, 기후노출 등에 따라 결정된다.

재해취약지역에서 주차장, 공원 등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시에는 방재시설, 빗물저장시설 등을 함께 설치할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도 추진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광원 & 조선희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 광 원

- 전남 영광 출생
- 광주 국제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활동
- 광주 동구 젠트리피케이션 전담 법률지원단 ‘젠트리닥터’ 위원
- 광주YMCA 시민권익변호인단 단원

광주건축사회 법률자문위원 변호사 조 선희

- 전남 강진 출생
- 영암여자고등학교 졸업
- 전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전남대 산업대학원 건축공학과 수료
- 광주광역시 건축위원회 위원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지원단 자문위원

광주 동구 동명로 107, 402호 T. 062)234-7417 F. 062)234-7418 E. law7417@daum.net

조성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건축설계 공모

실수요자 중심의 사업으로 조성농공단지 내 입주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필요 시설과 환경개선, 편리성을 중심으로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를 통해 노동과 삶, 주민들의 일상이 어우러지는 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삶의 질을 높여 도시를 활성화하고 더 나아가 조성면에 신규 건립하는 제2농공단지까지 이끌어가기 위함임.

당선작 : 바오 건축사사무소
 우수작 : 에스디 건축사사무소
 가작1 : (주)로운 건축사사무소
 가작2 : 다온 건축사사무소
 * 우수작, 가작1, 가작2 자료 미제출

심사위원 : 박홍근(포유건축), 송성환(드림건축), 송정석(동강대), 오상목(호남대), 한형민(예향건축)

- 대지위치 : 전라남도 보성군 조성면 조성리 1266번지
- 대지면적 : 3,862.90㎡
- 건축면적 : 847.89㎡
- 연 면 적 : 1,167.38㎡
- 용 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다가구주택)
- 규 모 : 지상 2층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 외부마감 : 라임스톤, 고밀도 목재 패널, 알루미늄 패널, 로이복층유리

당선작

김진우 건축사 / 바오 건축사사무소



조성농공단지와 자연환경을 투영한 디자인 계획

· 주변과 조화로운 경관이미지와 자연을 담은 수직적 패턴을 반영한 지역 친화적 디자인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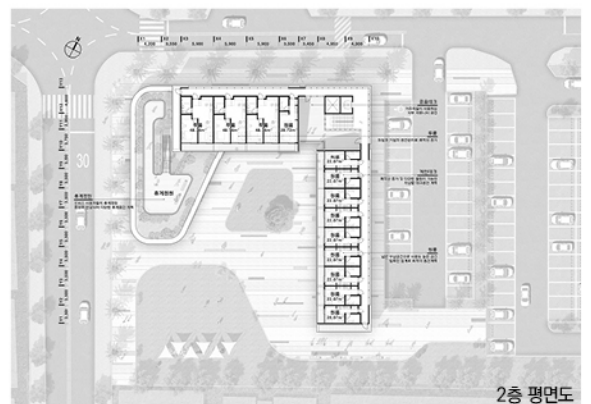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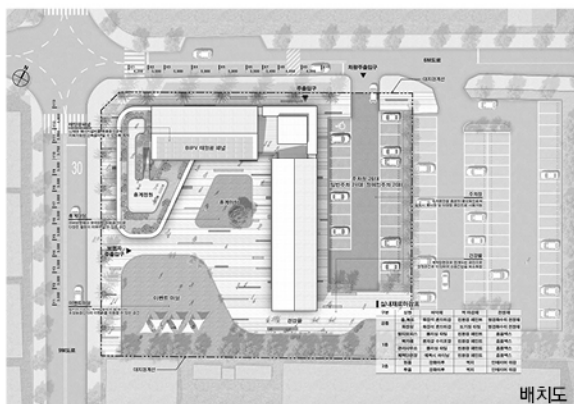
색채 및 재료계획

· 주변과 조화 및 시공성, 경제성을 고려한 색채 및 재료 선정



긴 처마를 통한 일사 차단

· 계절별 일사량 조절을 통해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



책 소개 _ 진다엘 학생기자 / 조선대학교 건축학과(5년제)

서울이 본 도쿄, 도쿄가 본 서울

양재섭, 김상일, 민승현, 김승준, 성수연 외 7명 저 / 서울연구원 / 2023. 08. 01.

이 책은 5명의 서울연구원(양재섭 외 4명)과 일본 도쿄도립대학 등의 연구자 7명을 중심으로 저서 된 책으로, 2000년대를 기준으로 서울과 도쿄의 도시 공간 정책을 비교한 내용을 상세하게 담고 있다. 이 연구는 동아시아에서 거대도시로 형성된 도쿄와 서울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교훈을 받아들이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서로에게 주는 시사점을 주목하고자 한다고 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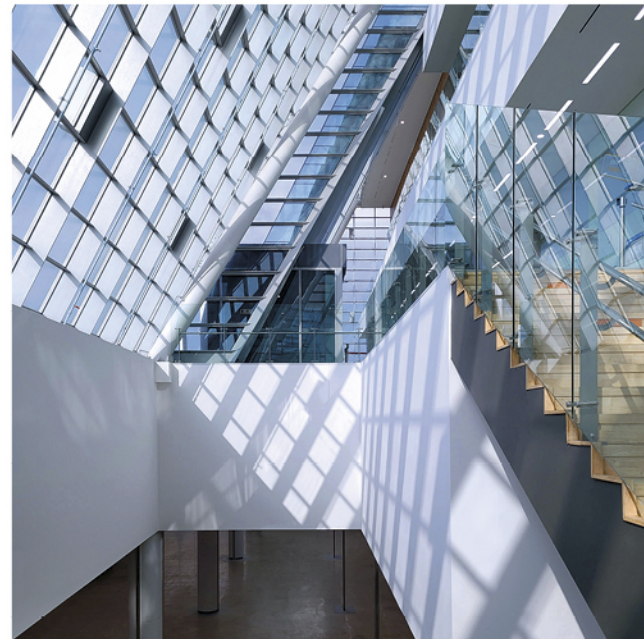
이 책의 구성은 서울과 도쿄의 도시 공간정책을 비교하게 된 계기를 시작으로, 1부에서는 2000년대 도시 공간정책을 통한 두 도시의 비교를 메인으로 4개의 장으로 정리되어 있다. 2부에서는 6가지의 정책 이슈를 통해 서울과 도쿄를 비교하는 6개의 장으로 정리되어 있다.

1부는 2000년대의 중추적인 도시 공간정책을 통해 두 도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한국은 급격한 성장을 하면서 서울은 대한민국의 중추적인 중심 도시로 거듭났다. 그에 따른 다양한 개발사업과 재개발이 활성화되면서 빠르게 성장하던 중, 발생하는 많은 도시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 그에 따른 무분별한 개발에 의한 도시의 인프라 유지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타이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2000년대의 서울 도시기본계획의 변화를 중심으로 도쿄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하면서 도심부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를 중심으로 두 도시를 비교하기 위해 저성장, 고령화, 양극화, 고밀화, 광역화, 노후화 등의 당시 공통 도시 트렌드를 선정하고 그 주제에 따른 현재 상황 및 인구 사회적인 도시 변화 추이를 검토한다.

2부는 도시계획의 분권화, 선적 도시재생, 초고층화에 따른 개발과 관리, 지역 격차와 불균형, 고령화, 교통정책 등의 6가지 정책 이슈를 선정하여 서로 비교분석하는 데 중점을 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 2010년 전후부터 도시계획 체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서울은 시민들에게 있어 더욱 직접적이고 정확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 ‘생활권계획’을 도입하여 생활권에 따른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방안을 세우고자 했다. 무분별하고 추상적인 도시계획에서 벗어나 정확한 개선 과제 및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도입된 체계로서 그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 등을 다양한 사례 및 비슷한 현상을 겪고 있는 도쿄와 비교하여 필요한 지원정책 및 개발공급기준 제시 등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건축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도시’의 변화 및 현황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책으로, 구체적인 사례조사와 도식화 표현으로 생생한 분석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변해가는 사회에 맞춰 달라지는 도시를 통해 건축의 기반인 ‘도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관심을 갖게 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한 장의 사진



이동희 교수 작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전남도립 미술관

전라남도 광양시
2023년 4월 16일

한 편의 시 _ 濟堂 추원호 / 건축사사무소 신세대그룹

오뉴월 장맛비

건지산 울창한 대숲
유월 장맛비에 옷이 젖는다

우산 속 빗물도
녹색 잉크로 가득하다

여름의 뜨거운 열기
장대비가 내리누르고
비에 젖은 대나무 잎
모처럼 생기가 돈다

고비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사랑하는 마음도 마디가 있듯이
흐르는 빗물이
마디마다 울컥거린다

내 땀에 난 상처
빗물에 씻길 순 없지만
축 늘어진 대나무 잎으로
오랫동안 잊힌 그대에게
편지를 쓴다

사랑하는 사람아
자주 볼 수는 없어도
마음속엔 늘 그리운 사람
흐르는 빗물에 슬픔을 씻는다



濟堂 추원호
건축사사무소
신세대그룹

The 큰 믿음을 주는 기업
태신중공업(주)

ES빔 철골공법
Economic Steel Beam

구조설계 무상지원

- 2022년 매출액 : 260억원(시평액 : 123억원)
- 고층빌딩, 물류창고, 주차장, 공장 등 다양한 시공 실적 보유
- 공장 내 전공정 자동화 시스템 도입

ES빔 철골구조

단처부위를 설비배관 통로로 사용하여 층고가 낮아짐 (천정고는 높아짐)

일반 철골구조

설비배관 설치로 층고가 높아짐 (천정고는 낮아짐)

ES빔 철골공법 특징

철골공사 15~45% 평가절감

내부기둥을 최소한 획기적인 철골공법

시공성 용이

공시기간 단축

구조/설비/기계/기밀/인공/시보유 (15년/20년/30년/40년)

The 큰 믿음을 주는 기업
태신중공업(주) 대표이사 김대곤

본사 · 공장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예곡산단5로 39
광주사무소 |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333, 사업화 4동 204호
TEL. 061.818.1700 FAX. 061.818.1701
H.P. 010.5517.5704 E-mail. esbeam@daum.net